



너는 특별하단다!

웬믹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의 웬믹들은 다양한 모습인데 모두 다 목수 엘리가 만들었다. 웬믹들은 매일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별표나 점표를 붙이고 다녔다. 색이 잘 칠해지고 재주가 뛰어난 웬믹에게는 별표를 붙이고, 칠이 벗겨지고 재주가 없는 웬믹에게는 점표를 붙였다. 별표가 붙은 웬믹들은 반짝거리는 몸을 뽐내고 다녔지만 점표가 붙은 웬믹들은 그렇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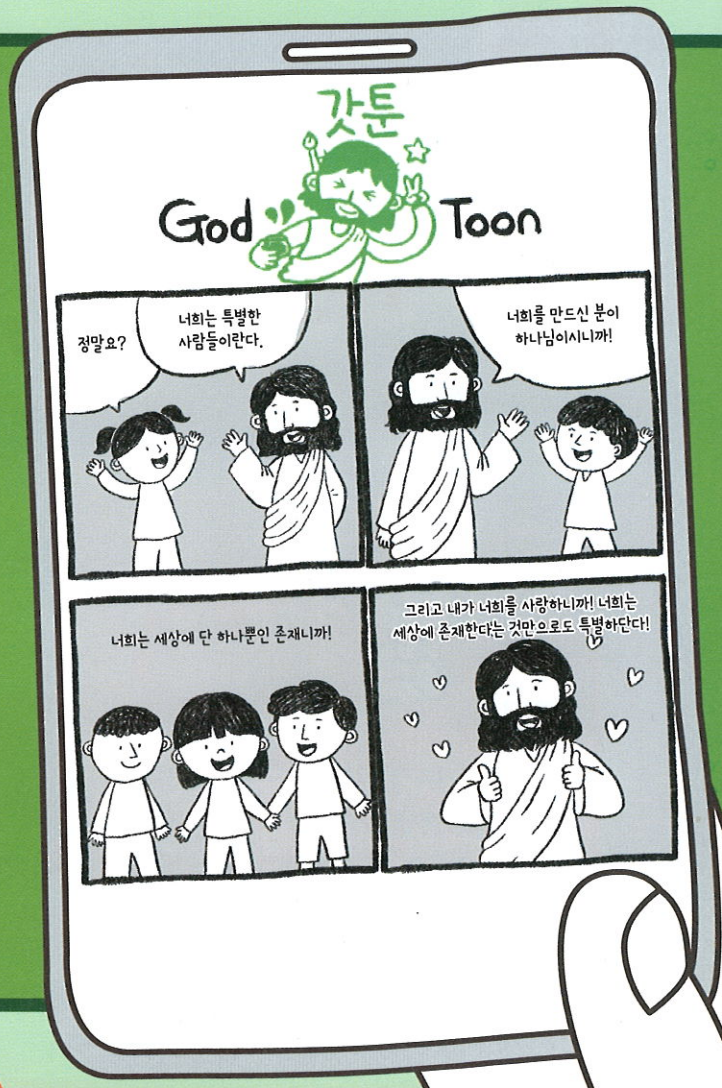
주인공 펀치넬로는 재주가 없어 항상 점표를 받았다. 펀치넬로는 별표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잿빛 점표로 가득했다. 웬믹들은 점표를 많이 받은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수군댔다. 펀치넬로 스스로도 잿빛 점표로 가득한 자신은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별표도, 점표도 없는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게 되었다. 루시아는 그런 자신을 신기하게 여기는 펀치넬로에게 목수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펀치넬로는 용기를 내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지만 다시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엘리 아저씨는 먼저 펀치넬로를 불러 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점표로 가득한 자신이 왜 특별한지 묻는다.

그때 엘리 아저씨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난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라고 한다. 펀치넬로는 돌아가는 길에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출처: 맥스 루케이도 저, 아기장수의 날개 역,
「너는 특별하단다」(서울: 고슴도치, 2002)



오늘은 내가 주인공! 산가지 게임

산가지는 ‘셈하다’라는 한자 ‘산’(算)과 ‘나뭇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옛날에는 셈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나 후에 놀이가 된 우리나라 전래 놀이랍니다. 각 반, 또는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먼저 주인공을 한 명 뽑고 그 친구에게 점수를 매길 특권을 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산가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주인공이라는 것을!



*준비사항

- 나무젓가락 50개(젓가락을 뜯어서 사용, 나중에 이쑤시개로 활용 가능)
- 매직으로 나무젓가락 끝을 10개씩,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한다.
- 주인공을 뽑는다.
- 주인공은 색칠한 나무젓가락마다 다른 점수를 정한 후 가려 둔다.
- 점수를 적을 종이와 펜

*진행방법

1. 나무젓가락을 모두 섞어서 평평한 곳에 떨어뜨린다.
2.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무젓가락을 하나씩 가져간다. 이때 다른 나무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 떼었으면 연달아 계속 가져올 수 있다.
3. 다른 나무젓가락이 움직였으면 다음 사람으로 순서가 넘어간다.
4. 게임이 끝나면 주인공은 가렸던 색깔별 점수를 보여 준다.
5. 각자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긴다.
6. 가장 적은 사람은 주인공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다음 주인공이 된다.